

이름: 김동영

이메일:

나이: 18

직업: 학생

거주지역: 경기도 안양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013

2014

처음참여

5월12일 (화) 일기

양명고등학교

2학년 14반 4번 김동영

아침6시 30분 오늘도 멀리 있는 학교를 가기위해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아침 밥은 계란후라이에 햄이었다. 그리고 늘 있는 김치를 약간 먹고 최근 밥맛이 없어서인지 별로 먹지 못했다. 그리고 과일은 오렌지를 먹었다. 이것 역시 2조각 밖에 먹지 못했다. 그리고 이를 닦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스쿨버스를 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문 밖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버스는 아직 오지 않아 무사히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버스를 타는 친구 중에는 의현이가 있다. 7시 15분에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7시 38분에 학교에 도착을 했다. 학교 앞에서는 공책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피해서 교문에 들어갔다. 교실에 도착하니 7시 45분정도 되었다. 그리고 제일 일찍 와서 아무도 없고 불도 꺼져있었다. 내가 온 다음에는 지훈이(곽)동현이가 왔다. 일찍 와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8시 5분이 되자 현곤이가 왔다, 그리고 10분후에 호련이가 왔다. 그런데 친구들이 별로 오지 않아 다음 주에 활동하겠다고 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8시 40분쯤에 교무실청소를 하러 갔다.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께서 조회를 하셨는데 오늘 일기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되었는데 오늘의 시간표는 영어 영어 지구과학 미적분 중국어 문학 윤리와 사상이었다. 영어시간에는 공부를 2쪽하고 계속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지구과학부장이어서 수업을 교실에서 하시는지 여쭙어 보기위해 교무실에 들렀다가 없으셔서 지구과학실에 들러서 수업을 지구과학실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애들한테 알리기 위해 교실에 가서 알리고 지구과학실에 가서 지구과학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미적분 수업을 듣고 중국어 수업을 듣고 문학 수업을 듣고 윤사 수업을 들었다. 오늘도 수업에 졸지 않아 기뻐다. 그리고 다시 종례시간이 되었는데 체험학습조사를 하였다. 근데 체험학습조사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계획한 건데 누군가 불만족이라 표시해서 혼났다. 오늘은 보충이 없어 야자를 하였는데 별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40분후에 정류장에 내리고 10분후에 집에 도착했는데 11시가 되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빨리 이 일기(기록)을 마치고 자기위해 준비를 하고 컴퓨터를 꺼야 겠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동아리가 있다. 그리고 내일은 동아리시간이 있고 목요일에는 국어수행이 있고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이고 동아리에서 계획한 공정무역상품을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피곤하다 현재 양명고 양명여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썼다. 그럼 이제 그만 자야겠다. 난 이제 내일을 위해 자야 겠다. 힘내자!! 그럼 이 일기는 내년에 보자 아마 그 때는 수능 때문에 바쁘겠지?! 그럼 이제 그만 써야겠다. 내년에 봐 일기야 내년 때 이 일기보고 후회하지 말자 그동안 계속 힘내면서 살자 화이팅!!!!!!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서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marchives.org/>